

실의 세계와 허구의 세계를 잇는 연결 고리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관계의 검토는 역사와 현실의 제반 문제들이 본문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서사학은 화자에게 논의를 집중하는 대신 작가를 토론의 마당에서 추방함으로써 형식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화자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서사학이 당면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학은 화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세밀한 기술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화자를 이루는 요인이나 화자의 존립 근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그저 본문에서 화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문에서 사건을 보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서 그 ‘누구’를 화자라고 지칭할 뿐이다. 화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은 화자의 존립 근거는 아니다. 거꾸로 화자가 있기에 그로부터 비롯된 효과로서 그러한 기능과 역할이 발휘된 것이다. 따라서 화자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는 기존의 서사학이 공백으로 남겨둔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 절의 논의는 서사학의 화자 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부터 그 입각점을 마련한다. 이미 지적인 대로 서사학은 본문의 기술에서 작가를 배제시켰으며 화자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를 결여한다. 여기서는 작가의 복권과 화자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서사학이 당면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그런데 작가와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양자는 서사 주체라는 통칭으로 포섭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가의 복권과 화자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이라는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맞물려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현실과 본문에 대한 서사 주체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작가와 화자, 현실과 본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모형의 개발을 통해 서사 주체라는 포괄적인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그러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 라캉의

주체 개념을 검토하기로 한다.

주체 개념은 근대 서구 철학의 중심 화두이다. 사유를 그 본질로 삼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로부터 타자의 자아화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궁극적인 동일성을 추구하는 헤겔의 주체 개념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근대 철학은 주체를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인 동시에 자기 목적적인 정신의 소유자로 간주했다. 아울러 주체는 객관적 지식을 인식하거나 구성할 수 있으며 이성의 힘으로 세계를 통제할 수도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주체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신념들은 ‘탈 근대’의 시대를 맞으면서 심각하게 회의되거나 부정된다. 탈 근대의 철학자들에게 주체는 더 이상 자율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다. 주체는 무수한 관계들의 교차점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관계들을 따라 해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푸코에게 주체는 담론들의 집합에 불과하며 데리다는 무한히 이어지는 차연의 관계를 따라 주체가 부유한다고 생각한다. 라캉은 푸코나 데리다보다 직접적으로 주체의 문제에 접근한다. 그것은 라캉이 그의 입지를 정신분석학에 두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은 이름 그대로 인간의 정신 자체를 다루는 분야이다.

라캉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을 주체로서 최초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거울을 통해서이다. 생후 약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유아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한다. 유아가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는 이 시기를 라캉은 ‘거울의 단계’라고 부른다. 거울의 단계로 진입하기 전까지 유아는 자신의 신체가 파편화 되어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어력이 미처 갖추어지기 전에 세상에 태어난다. 신체를 통어하는 능력은 생후 일정 기간 지속되는 성장과 그에 따른 운동 신경의 발달에 의해 획득된다. 신체가 파편화 되어 있다는 환상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뜻대로 통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유아는 거울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파편화된 신체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된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유아의 신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아는 거울 속에서 완벽한 하나의 통일체를 본다. 그 통일체는 배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뚜렷하게 구별된다. 유아는 상상적인 동일시를 통해 그 통일체를 자신으로 인식한다. 한편 그러한 인식은 유아에게 소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거울은 완벽한 통일체를 보여주는 데 비해 실제로 유아는 자기 신체를 뜻대로 통어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자신의 신체적 무기력으로 인해 유아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 앞에서 소외를 경험한다. 유아는 그 자신의 발육 상태보다 일찍 거울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유아가 거울을 통해 보는 주체의 통일성은 환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유아는 그 환상이 빚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거울 속의 이미지에 고착된다. 라캉의 자아는 그러한 고착으로부터 형성된다. 거울 단계에 대한 라캉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는 주체로 하여금 환상 속에서, 육체적인 실체의 성숙의 단계를 앞지르게 하는데, 이 육체의 온전한 형태라는 것은, 단지 게슈탈트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외면성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다. 이 게슈탈트의 함축성(pregnance)은, 아직 운동 신경을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 동시에 종(種)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외면성에서 육체의 형태는 형성되어진 것이라기 보다 형성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 형태는 주체가 해 내려는 움직임의 부산스러움과는 대립적으로, 형태를 고정시키는 조상(彫像)의 특성을 보이면서 주체에게 나타난다. 이 게슈탈트는 공간과 연관해서 그 가능성이 점검되는데, 이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국면으로 인하여 동시에, 나의 정신적 영구성과 주체의 소외적 방향을 미리 예고한다.¹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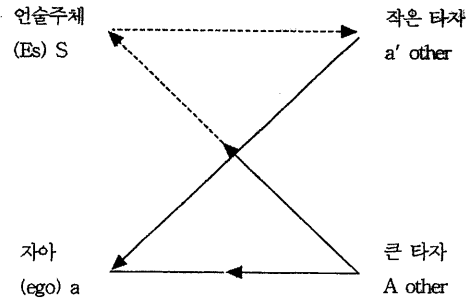
라캉은 거울에 비친 형태가 주체를 형성한다고 한다. 주체는 통일성과 전체성을 스스로 충족하는 존재로 이해되지 않는다. 주체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에 의해, 즉 타자에 의해 형성된다. 운동 신경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인간 주체는 거울 속에 고정된 형태에서 주체의 통일성과 전체성이라는 환상을 보는 동시에 소외를 경험한다. 주체는 그러한 환상을 실현하고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거울이 보여주는 형태에 고착한다.

주체와 거울에 비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라캉은 ‘상상적 관계’라고 부른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함에 따라 그 상상적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자신으로 동일시하던 주체는 이제 언어를 매개로 표시된다. 주체는 언어로 표시된 자신을 인식하는 한편 언어를 통해 스스로를 표시하게 됨에 따라 상징적 질서로 진입하게 된다. 상징은 부재를 대신하며 부재를 표시한다. 주체가 언표되는 자리에서 주체의 실상은 부재하게 된다. 주체가 스스로를 언표하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럴 경우 주체는 그의 언술 속에서 주체를 타자화 함으로써 주체의 부재를 표현하는 셈이 된다. 통일성의 환상이 빚은 소외로 인해 거울 속의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던 주체는 언어에 의해 다시 소외되는 것이다. 거울 속의 이미지가 주체를 형성하는 타자라면 언어라는 상징적 질서는 주체를 형성하는 다른 타자이다. 거울 단계의 주체는 상징적 질서가 형성한 주체와 구별된다. 라캉은 전자를 자아로 후자를 주체(S)로 부르며 주체가 그 양자로 분열되어 있다고 한다. 분열된 주체가 타자와 맺는 관계를 라캉은 아래의 도식으로 나타낸다.¹²⁹⁾

128) 멜렘 보위, 『라캉』, 이종인 역(서울: 시공사, 1999), p.47에서 재인용.

129) 최종렬, 『타자들』(서울: 백의, 1999), p.73. 이곳에 인용된 라캉의 L도식을 재인용함. 역어는 필자 불임.



위의 도식에서 작은 타자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이다. 자아는 유아가 작은 타자를 자신과 상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다. 큰 타자는 언어, 관습, 규범, 법률 등처럼 인간의 사회를 질서 지우는 상징들을 일컫는다. 그러한 상징적 질서가 정신에 무의식으로 설치됨으로써 인간은 언어를 구사하게 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그가 그린,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정신의 지형도를 통해 무의식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다. 라캉에게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질서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상징적 질서가 빛은 억압과 소외가 정신에 무의식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의식이 상징적 질서로부터 비롯된다면 무의식의 구조가 상징적 질서를 따른다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라캉의 선언적 언명이 나오는 것이다.

자아와 작은 타자가 맺는 상상적 관계에 큰 타자가 개입함으로써 무의식이 설치되고 그로부터 연술 주체가 형성된다. 큰 타자는 주체를, 연술 외적 주체와 연술 내적 주체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위의 도식에서 자아는 전자를 가리키고 연술 주체는 후자를 가리

킨다. 자아의 연술 행위는 의식적이다. 그러나 연술이 자아의 의식적인 행위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연술은 상징적 질서가 설치한 무의식의 작용으로 구성된다. 연술 주체는 무의식을 연술하는 주체, 혹은 무의식에 의해 연술되는 주체를 말한다. 위의 도식에서 화살표는 작용과 형성의 방향을 가리키며 실선은 의식을 점선은 무의식을 표시한다. 큰 타자와 자아를 연결하는 실선은 자아의 연술 행위가 의식적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큰 타자와 주체를 실선과 점선으로 연결한 것은 상징적 질서가 주체에 내장되는 방식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체는 의식적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이기도 한 갖가지 문화적 학습을 통해 상징적 질서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한편 연술 주체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타자를 지향한다. 작은 타자는 유아로 하여금 주체의 통일성과 전체성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한 거울 속의 이미지이다. 유아는 그 이미지에 고착하여 그것의 실현을 욕망하지만 자신의 신체적 무기력으로 인해 소외를 경험한다. 라캉이 전하는 주체 형성의 드라마는 연술 주체의 욕망이 궁극적으로는 거울 단계를 통해 고착된 주체의 통일성과 주체성이라는 환상을 지향한다고 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위의 도식에서 연술 주체와 작은 타자는 점선으로 연결된다.

인간 주체와 관련하여 라캉이 제출한 도식은 서사 주체를 논의하는 데 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주체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사 주체의 문제가 자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사 주체는 인간 주체의 한 변형인 것이다. 라캉의 도식에서 인간 주체가 자아와 연술 주체로 분열되는 것처럼 서사 주체는 작가와 화자로 분열된다. 서사 주체는 작가와 화자로 분열되어 현실과 서사적 관습에 관계한다. 한편 현실과 서사적 관습에 대한 서사 주체의 관계는 작은 타자와 큰 타자에 대해 인간 주체가 맺는 관계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인간 주체와 서사 주체 사이에는 유추적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서사 주체를 이해하는 데 라캉의 도식을